

“영화 팬 더 자주 만날 걸... 후회스러워”

11년 만에 '군체'로 복귀 전지현 “좋은 작품으로 돌아와 뜻깊어 연상호 감독은 좀비의 아버지 현대사회 비판적 시각 잘 담았다”

“너무 오랜만에 영화를 한다는 게 후회스러울 정도로, 영화 관객들을 더 자주 만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습니다”

배우 전지현이 영화 ‘암살’(2015) 이후 11년 만에 연상호 감독의 좀비 영화 ‘군체’로 스크린에 복귀한 소감을 전했다.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지현은 “그간 관객들과 소통할 기회가 없어 아쉬웠다”며 “이번 무대인사를 통해 많은 관객과 마주할 수 있어 배우로서 매우 뜻깊고 신선한 경험이 되었다”고 전했다.

‘군체’는 도심의 대형 쇼핑몰에서 대규모 좀비 감염 사태가 일어나며 인간과 좀비가 혈투를 벌이는 이야기다. 전지현은 생존자들을 이끄는 생명공학자 권세정 역을 맡았다.

전지현은 “아무래도 연상호 감독

님 ‘좀비들의 아버지’이지 않나”라며 “배우로서 항상 장르물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연상호 감독님의 작품을 받게 되어 좋았다”고 돌아봤다.

특히 지성을 공유하며 ‘업데이트’를 통해 빠르게 진화하는 좀비라는 ‘군체’의 설정이 흥미로웠다고 한다.

전지현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본인의 사유를 인공지능(AI)에 양도하는 모습을 감독님께서 좀비물 안에 비판적인 시선으로 재치 있게 담아내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극 중 권세정은 생존자 그룹의 리더로서 좀비를 피해 도망치는 등 액션 장면이 많지만, 촬영 현장에서 힘든 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전지현은 “연상호 감독님의 작업은 정말 편했다”며 “정시 출근·정시 퇴근에 현장 분위기가 좋은 데다 감독님이 늘 편하게 대해주셔서 촬영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래서 다른 배우들이 감독님

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작업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군체’가 연 감독과 함께한 첫 작품이었던 전지현은 이후에도 이른바 ‘연니버스’(연상호 유니버스)의 일원으로 같이 작업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현장에서 감독님께 ‘차기작이 어떻게 되시냐’ 물어보는 등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며 “다음에 준비하시는 게 액션물인 것 같아서(출연을 기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배우 구교환이 맡은 캐릭터 서영철을 두고는 “배우로서 탐나는 역할”이라고 표현했다.

서영철은 대규모 좀비 사태를 촉발한 인물이자, 좀비들을 지휘하는 새로운 모습의 빌런으로 그려진다. 특히 서영철이 생각만으로 ‘집단지성’을 가진 좀비들을 지휘하는 장면은 영화의 백미 중 하나다.

전지현은 “서영철은 ‘군체’ 등장인물 중 가장 돋보이고 서사가 많이 깔려있지만, 또 (연기하기에) 쉽지 않은 캐릭터”라며 “구교환이 서영철을 맡는다고 했을 때 색다르게 매력적인 연기를 보여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눈을 가리고 좀비들을 컨트롤하는 장면 등을 과연 어떻게 표현해낼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구교환의 색깔대로 매력 있게 표현해서 ‘역시’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제79회 칸국제영화제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돼 16일(현지 시간) 전 세계 관객들을 먼저 만난 소감도 전했다.

전지현은 “영화인들의 꿈의 성지라고도 할 수 있는 곳에 ‘군체’ 팀이 가서 분위기를 즐기고, 거의 매일 흥분 상태로 지냈다”며 “칸이 최종 목표는 절대 아니지만, 자주 가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더라”고 회상했다.



영화 ‘군체’ 속 장면.

네이버 스틸컷



그들 방탄소년단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AMA'에서 통산 두 번째 '올해의 아티스트'를 수상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RM “적당히들 하십시오” 호소 부산 불붙은 공정숙박 챌린지

내달 12~13일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가운데 숙박시설을 무상이나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공정숙박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범여사를 비롯한 해당 챌린지에 참여하는 호텔은 자체 누리집으로 예약받는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BTS 공연과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자 소중한 공간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숙박 시설의 편의와 안전 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부산 일대 숙소 요금 폭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리더 RM은 이날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이후 진행된 팬 플랫폼 위버스 라이브 방송에서 “오랜만에 부산에 가는 데 이 자리를 빌려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며 “부산 숙박 문제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속상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물론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가격 변동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부산 숙박업소 관계자들을 향해 “좀 적당히들 하십시오. 진짜로”라며 부산 사투리로 당부하기도 했다.

부산 출신인 지민도 “마음이 안 좋다”며 “팬들이 부산에 올 때마다 좋은 추억 발생 시 계시던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부산 출신인 지민도 “마음이 안 좋다”며 “팬들이 부산에 올 때마다 좋은 추억 발생 시 계시던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내달 12~13일 BTS 공연 앞두고
숙박 바가지요금 논란 커져
대학·종교계·공공기관 등
400명 이상 숙박 공간 제공

대학은 부산대, 국립부경대, 고신대 등 3곳, 공공기관은 철도인재기술원과 부산도시공사 아르파나가 동참한다. 이 챌린지에 동참하는 전체 객실은 100개가 넘고 수용 인원은 400명 이상이다. 요금은 상당수가 무료거나 최대 13만 1000이다. 여기에 더해 부산진구 조방해수탕도 공정숙박에 동참할 예정이고,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과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부산송도비치 등 관광호텔은 취소 객실

라이브 방송에서 “오랜만에 부산에 가는 데 이 자리를 빌려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며 “부산 숙박 문제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속상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물론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가격 변동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부산 숙박업소 관계자들을 향해 “좀 적당히들 하십시오. 진짜로”라며 부산 사투리로 당부하기도 했다.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브로멜라인 + 레시틴

슬개골과 고관절의 염증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